

나주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공모 도전

나주시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시청 이화실에서 전남도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구현하는 대규모 실증(實證)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 연구비가 투입되며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된다.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나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유형별로 각각 1개씩 실증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과 안전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증연구이며 '비즈니스 창출형'은 환경과 에너지, 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리빙랩(liv-

삶의 질 높이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사업계획 보고·토론 에너지 수도 비전 실현·지역경제 혁신성장 교두보 기대



지난 21일 시청 이화실에서 전남도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ing lab·실험실이 아닌 생활현장에서 진행되는 연구) 형태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실증연구이다.

이중 나주시는 비즈니스 창출형 공모에 도전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제안서 제출이 끝나면 다음달 14일 1차 서면평가를 거쳐 5배수를 선정한다.

이어 7월 초 현장발표평가에서 3배수를 뽑은 뒤,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 지자체 2

곳(도시문제 해결형 1곳, 비즈니스 창출형 1곳)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총 예산 368억 원이 투입되는 비즈니스 창출형은 전문 연구단 기술협업으로 혁신 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실증도시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실현 및 지역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밸리 ▲에너지지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의 4대 분야 12대 전략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공모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시진2 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며 "실증도시 선정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혁신도시에 모기 천적 미꾸라지 6만8000마리 방사



나주시 관계자들이 빛가람동 중앙호수에서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혁신도시의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미꾸라지 6만8000마리를 방사했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빛가람동 중앙호수공원과 유전저수지, 매화재, 대호수변공원 등 4곳에서 '친환경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모기 천적 미꾸라지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된 미꾸라지는 1년생 이하로 1마리 당 하루에 말라리아 모기 매개인 중국얼룩날개모기 유충을 600마리 이상, 일본뇌염 모기 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꾸라지 방사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 여름철 모기 발생 밀도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뿐만 아니라 하천에 수질개선 등 일석이조의 친환경 방제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빛가람동 통장단과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공무원 등 80명이 참여했다.

여름철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나주시는 그간 해충발생 서식지 제거와 해충 포획기 설치, 친환경 미꾸라지 방사, 수생식물에 무해한 비트제 투입 등 모기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방사한 미꾸라지 생존 상태를 비롯해 디퍼(dipper)를 활용해 모기 유충 개체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퇴치의 지름길은 장시간 방치된 쓰레기, 물 고인 곳, 페타이어 등을 주민 스스로가 처치하는 것"이라며 "개인 청결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원 등 80명이 참여했다.

여름철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나주시는 그간 해충발생 서식지 제거와 해충 포획기 설치, 친환경 미꾸라지 방사, 수생식물에 무해한 비트제 투입 등 모기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방사한 미꾸라지 생존 상태를 비롯해 디퍼(dipper)를 활용해 모기 유충 개체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퇴치의 지름길은 장시간 방치된 쓰레기, 물 고인 곳, 페타이어 등을 주민 스스로가 처치하는 것"이라며 "개인 청결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이전공공기관 3곳서 추황배 판촉 행사

새 소비자 발굴·판로 확대

나주시가 지난 15일부터 3일 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황배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나주시거점유통센터(APC) 주최로 열린 판촉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시작으로 한전KDN과 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 3곳에서 점심시간대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추황배와 배즙 시식행사를 운영하는 등 나주 배 품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추황배는 우리

나라 고유의 배 품종으로 새콤달콤한 식감과 고당도로 '맛좋은 배'로 통한다. 껍질이 흑색으로 변하는 생리장해로 낫아 배로 불리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이 같은 요인을 극복해내면서 나주 배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펼쳐 새로운 소비자층 발굴 및 판로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로 이주해온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더불어 사는 지역경제 구축에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한국농어촌공사 로비에서 나주시거점유통센터(APC) 주최로 추황배 판촉 행사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음식점 등 위생업소 29곳 시설 개선 지원

나주시는 2018년 전라도 정명 전년을 맞아 나주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지로 일반음식점 23개소, 떡볶이간 4개소, 숙박업소 2개소 등

총 29개소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비 2억원(자부담 50%)을 투입해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나주시에 있고, 1년 동안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거나 국제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업소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 사업계획서가 본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된다.

특히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천재지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기간(5년 이상) 영업을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양도한 경

우의 제외하고 해당 업소를 매도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시에 신고해야 한다.

선해병 나주시 보건소장은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내달 1~8일 나주서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국내 최대 사격대회인 제48회 봉황기 전국사격 대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나주시 전라남도 국제사격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한사격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 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80개 팀 총 25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국제사격연맹 규정에 맞춰 국제경기전종목서 남·여 초·중·고 및 대학, 일반부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019년 국가대표 선수 및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주시는 올해 이번 대회를 포함해 ▲전국공기소총사격대회 ▲SBS프로볼링 나주투어 ▲전국 남·여중별 물리

대회 ▲제30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 ▲2018마스터즈 사이클 나주투어 등 총 7번째 스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해 명실상부 스포츠메카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시는 스포츠 전국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라도 정명 전년을 맞이한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선수들의 그간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지역 숙박 및 식당업소의 친절한 서비스와 경기장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Aroma Life 이노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편안하면서도 탄성GOOD! 흡발습GOOD!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발단면옥각형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